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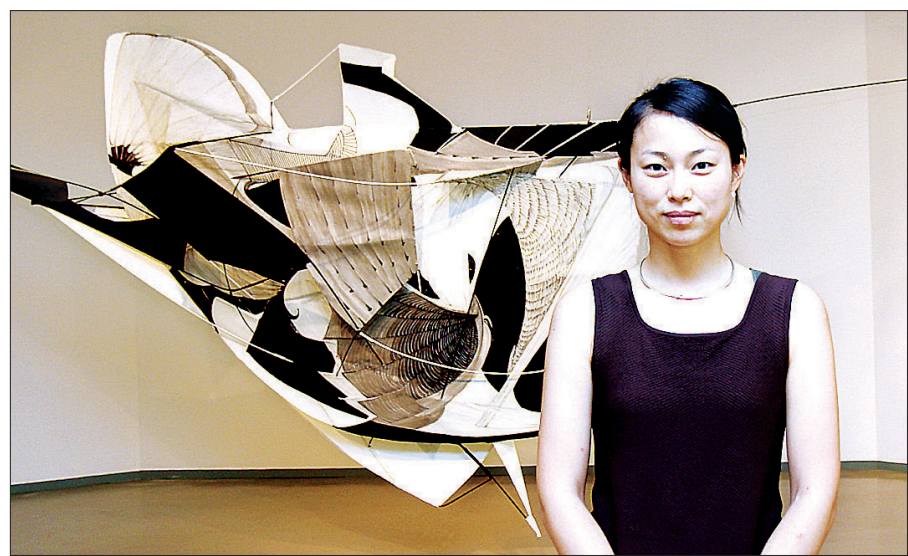
문화

“한지와 먹으로 생명 입히니 線은 禪이 되어 날아오르네”

중앙미술대전 작가로 선정된
불자 설치미술 작가 임지윤

“제 작품은 어렸을 적부터 접했던 문화의 총체적 작업이라 할 수 있어요. 불교 집안에서 자라 불교문화에 익숙했고 서예를 배워 먹과 한지가 좋았어요. 이번 작품은 연등 작업을 기반으로 한지에 먹을 사용했는데, 심사위원들께서 이런 제 작업을 좋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불자 작가 임지윤 씨(34)가 제 36회 중앙미술대전 작가로 선정, 9월 1일~10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에서 전시를 가졌다.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파리로 건너가 파리국립고등미술학교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한 임지윤 작가. 그는 연등 제작 기법을 설치 작업으로 완성한 작품들을 파리 네델란드 독일 등 유럽에서 전시해왔다. 이번 전시작 ‘소풍가는 내 기억들’ 역시 한지, PVC, 철사, 먹물, 연필 등으로 작업한 설치 작품으로 선(禪)적 이미지를 통해 충만한 생명력을 표현한다.



불자 작가 임지윤 씨가 제 36회 중앙미술대전 작가로 선정, 9월 1일~10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에서 전시를 갖는다.

연등제작서 설치 작품 모티브 언어
禪적 이미지로 충만한 생명력 표현
2008년 프랑스 유학... 파리로 활동

을 배웠어요. 그 과정이 인간의 뼈대를 구성하고 살을 붙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인체에 관심이 많아요. 아버지께서 정형외과 의사였고 집이 병원 건물과 함께 있어 늘 환자들을 보면서 자랐죠. 그러면서 인체 혹은 인간 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근육 핏줄 등을 하나의 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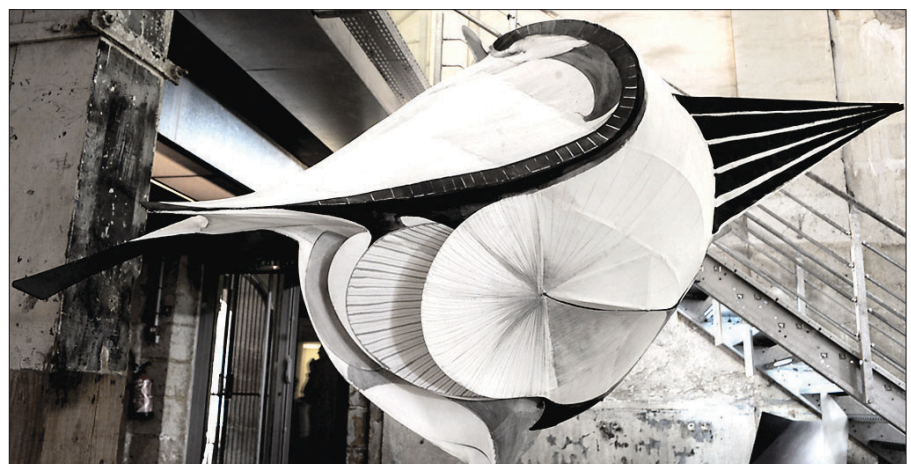
여동생이 출가를 할 만큼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란 그녀는 어머니를 따라 참선을 경험했고, 대학시절에는 3천배를 하면서 스스로의 내면을 다지기도 했다. “참선은 저에게는 아직 어려워요. 3천배는 무척이나 의미 있는 경험이었고, 3천배를 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 수행은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특히 예술가들은 자기 내면과의 싸움이 중요한데 이런 경험들이 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고 스

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데에 좋은 매개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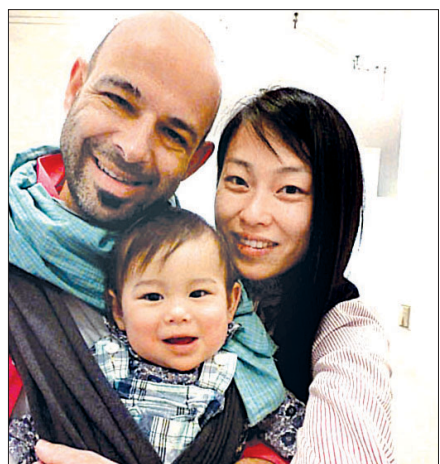
2008년 프랑스 유학길에 오른 임 작가는 2010년 프랑스인 재즈 음악가 에티엔드라 싸이에프와 결혼했다. 한국문화 애호가인 에티엔은 판소리, 전통가요 등 한국 문화를 음악에 접목시키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목탁을 타악기로 활용한 곡을 만들 만큼 불교문화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남편은 한국문화를 너무 사랑해요. 특히 김치는 물론 흥어까지 즐길 정도로 한국 음식을 좋아하죠. 한국에서는 2013년 순회공연을 가졌고 내년 봄에는 한국문화원 대사관이 주최하는 낭트 봄 축제에 1960년대 한국 트로트를 부르는 공연을 갖습니다. 저는 그곳에 전시를 열 예정이구요.”

현재 임 작가는 연꽃을 형상화한 작품도 작업중에 있다. “지금 연꽃을 설치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연잎은 완성했는데 아직 꽃은 못 만들었어요. 이 작품 역시 완성해 전시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임 작가의 작품은 연등제작기법을 활용, 한지와 먹으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작품은 '들리세요'



프랑스 재즈 음악가인 그의 남편 에티엔은 목탁을 활용한 음악으로 한국에서 공연한 바 있다.

뜨구름 같은 인생 절반이 시비라오

젊은 선비의 눈에 비친 건봉사

이인엽이 금강산 유람을 할 때 동행한 사람이 있었다. 조카딸 되는 최창대(崔昌大 1669~1720)였다. 최창대는 병자호란 때 주화론(主和論)을 폈던 최명길(崔鳴吉)의 증손이다. 1691년(숙종 17) 외숙부를 따라 금강산 유람을 나선 그의 나이는 23세였다. 요즘 같으면 대학교 졸업 반 정도 일 나이에 최창대는 건봉사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고도통행세(古道通行細)
제료면세분(諸寮面勢分)
장송전석벽(長松纏石壁)
복각반한운(復閣半寒雲)
수대춘상음(水 春相應)
상림정역문(霜林靜亦聞)
불수담법계(不須談法偈)
심이원인분(心已遠人紛)

오래된 길 통행하기에 좋아
동행인들 지세를 따라 나뉘었네.
늘어진 소나무 석벽 따라 얹히고
검 문설주에 차가운 구름이 한창.
물방아 짙으며 서로 호응하니
서리 내린 고요한 숲에도 들러오네.
계승으로 담소할 필요 없으니
마음은 이미 속세에서 멀어지는 걸.

23살의 젊은 선비 최창대가 지은 ‘건봉사방문하다(訪乾鳳寺)’라는 시다. 그의 문집 <곤륜집(昆侖集)> 제2권에 실려 있다. 시의 전반부는 평이한 묘사로 건봉사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미련의 대미는 23살의 청년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탈속적 면모를 보인다. 건봉사로 들어가는 동안 이미 마음은 세속의 번뇌 망상을 떠나 출세간의 고요 속으로 빠져 들고 있으니 굳이 법문(法論)을 이야기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속진의 번뇌를 물다

금강산 가는 길의 건봉사는 장송(長松)이 우거진 숲 속에 있고 동해도 가까워 선비들의 필수 유람 코스였으니 그 풍광을 읊은 시가 많은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고 건봉사에서 풍경만 읊은 것은 아니다.

조선중기 문장4대가 중의 한 명으로 꼽히는 백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은 건봉사에서 끈고한 삶의 고뇌를 노래했다.

시월공산우(十月空山雨)
삼경원객심(三更遠客心)
조한침호유(早寒侵戶雨)
징운습의곡(徵雲濕衣衣)
수대성환수(水 聲還數)
향등은욕침(香燈暈欲沈)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㉞ 건봉사 ㉞



건봉사의 역사를 말해주는 부도밭 풍경. 젊은 선비 이인엽은 금강산 유람길에 건봉사를 들렀다.

동명간안저(東溟却眼低)
용이교수심(容易較愁深)

보고 느끼며 살고 있다. 그게 중생계의 현상일 것이다.

시월 빈산에 내리는 비에
삼경 멀리 떠나온 객의 심회.
이른 추위 창틈으로 스며들고
늑늑한 습기 옷이며 이불을 적셔오네.
물방아 짙은 소리 거둬 돌아오고
향과 등불은 찾아드려 하네.
눈 아래 펼쳐진 동해 바다는
깊은 시름에 비교하기 쉽다네.

이식은 1631년(인조9)에 임금에게 밋보여 고성군 간성현감으로 좌천되었다. 그때 건봉사를 자주 찾았는지 그의 문집 <백당선생집>에는 건봉사와 관련된 시가 5편 실려 있다. 여기 든 시는 ‘건봉사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자다(宿乾鳳寺聽雨)’이다. 좌천되어 번방의 현감이 된 당대의 문장가 이식. 건봉사에서 잠을 자는데 날은 추워지고 늑늑한 기운이 옷과 이불을 적시니 상당히 서늘한 상황이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젖어 있는 밤, 물방아 소리가 들려오고 마침 향과 등불도 사그라 드려고 하니 그 처량함이 더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그 처량한 시름을 동해바다에 비교하며 시를 맺었다.

그렇게 풍정 생활로 간성현감을 지내던 이식은 드디어 왕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때 한결 밝아진 마음으로 3년간의 간성현감 생활을 마무리하며 지은 시는 이렇게 시작한다.

위향거승도(爲向居僧道)
부생반시비(浮生半是非)

여기 사시는 스님께 한 말씀 드리려오.
뜨구름 같은 인생 절반이 시비라오.

정말 우리 인생은 절반이 시비비다. 온통 시끄러운 세상, 우리는 좋은 것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을 더 많이 말하고 듣고

좌절한 허균이 찾은 건봉사

허균(許筠 1569~1618)이 금강산을 유람한 것은 35세 때의 일이다. 그도 당시 벼슬에서 파직되었는데 그 이유가 불교를 숭상한다는 것이었다. 서예 유성룡에게 학문을 배우고 삼당시인의 한 사람인 이 달에게 시를 배운 당대의 엘리트 허균. 벼슬길에서 좌절한 그에게 건봉사는 어떤 절이었을까?

건봉사재금강산(乾鳳寺在金剛山)
화공표묘경운간(花宮 柳雲間)
중유선승속설자(中有禪僧玉雪姿)
기가조반동림사(槩家早伴東林師)
(중략)
상봉문이고하사(相逢問我苦何事)
반세침감명여리(半世沈 名與利)
세심하불학참선(洗心何不學參禪)
료진인간노병사(盡人間老病死)
(후략)

건봉사는 금강산 속에 있어
높고도 아득한 도량 세속과 구름사이네.
그 안에 한 선승이 옥설 같은 모습으로
김버리고 일지참치동림스님의 짝이 됐네.
(중략)
만나자 나에게 묻길 무슨 일이 괴로워
반세상을 명리에 취해 있었는가?
어찌 마음 쫓고 참선 배워
인간의 노병사를 마치지 않는가?
(후략)

이 시는 허균의 문집 <서소부부고(惺所覆 蕪)> 제2권에 실렸다. 제목은 ‘정상인에게 주다(贈靜上人)’이다. 시의 전체 내용으로 보아 가을밤에 건봉사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교유하는 스님에게 주기 위해 쓴 것인데, 금강산 여행을 다녀오는 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사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경상도 : 010-9190-3350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불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라 할 것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대원선사 토기별>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흠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